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계적 소통과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8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신청서 발췌본)

신원환

(연구책임자, 동아연구소장)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08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 수행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인문한국지원사업은 인문학 및 해외 지역연구 분야에서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정책사업이다.

동아연구소는 2008년 11월부터 향후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계적 소통과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를 연구주제로 삼아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을 육성하여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동시에 외국의 우수한 연구소들과의 협력 속에서 한국의 동남아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에 그 신청서 발췌본을 여기에 실는다. [편집자 주]

I. 사업의 정신과 목적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는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국가와 분야를 연구하는 동남아 지역전문가들을 모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잠재적 비교우위를 가진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왜 국제적인 성과와 명성을 얻어내지 못한 채, 국내의 지식수요 충족에만 급급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마련하였다. 우리 연구소는 이 토론회에서 개진된 유용한 제안들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계적 소통과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 라고 명명한 종합적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과 우리 동남아연구의 실정을 적절히 고려한 현실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의 수준과 영향력을 빠른 시간 안에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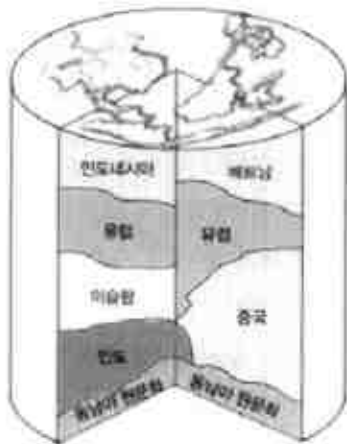
[열린 동남아 지역체계의 역사적 형성]



우리 연구소가 수행하는 지역연구를 향도할 '패러다임'은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 이다. 흔히 주변적, 폐쇄적, 분열적으로 폄하되어 온 동남아를 개방성과 체계로써 파악하려는 시도는 세계관과 인식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한다. 동남아의 역사, 문화, 사

회를 열린 체계로 보게 되면, 서구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 식민주의, 자민족중심주의, 부족주의 편견과 우상으로 오염된 동남아에 대한 패권적 인식과 지식은 폐기되거나 교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린 지역체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역연구가 추구해 온 인문사회분야 세 분과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접근의 단계를 넘어서, 타 지역 및 그 연구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역제적(域際的: interregional) 소통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열린 지역으로서 동남아는 오랜 과거로부터 인도, 중국, 중동, 유럽, 일본, 미국 등 외부 지역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그 문명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타 문화를 환경에 맞게 변용하는 융통적 개방성의 역사를 전개해 왔다.

[동남아 문화 모자이크의 지층도]



인력과 후속세대 양성, 연구소 선진화, 국영문 연구서 및 국제학술지 출판, 교양강좌 실시, 대중교양서 출판, 국내 자료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상호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였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만 예시한다.

첫째, 우리 연구소는 빠른 기간 안에 국내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소”로 자리 잡기 위해 우리 연구소의 전임연구인력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연구클러스터(research cluster)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의 우수 연구소들이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다른 연구소나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등 국내외 모든 동남아 전문 연구소에게 우리의 연구과정을 개방하고, 자원과 자료를 공유하며, 복합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자 및 연구소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이 “세계적 담론을 생산”하고 그 “소통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양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열린 동남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 구체적인 연구들을 축적해 갈 우리 연구자들은 여전히 개별 국가나 폐쇄적 동남아라는 낡은 틀에 입각하여 작성될 ‘주류’ 동남아학과 끊임없이 맞닥뜨려 경합을 벌이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담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셋째, 우리 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아울러 경주할 것이다. 동남아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동남아와의 지역 협력과 통합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연구소는 동남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동남아의 다채로운 문화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대중강좌를 개발하고, 동남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교양서적을 시리즈로 출판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복합적인 사업들을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취지와 본 신청서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장차 한국의 동남아 연구자들이 세계적 이론 및 담론 형성과 소통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연구소가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선도하는 중심적인 연구소로서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동남아 전문 연구소 가운데 하나로서 우뚝 서게 되리라 굳게 믿는다.

II. 사업계획

1. 사업의 목표

우리 연구소는 국내적으로 지역연구분야의 선도적 기관으로 성장과 동남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지식의 제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동남아 연구기관의 건설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우리 연구단은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국내의 다른 동남아를 연구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타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연구기관의 벤치마킹의 모범적인 선례를 제공하는 지역연구분야의 선도적 연구기관이 되고, 향후 지역연구가 지속·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의 이런 성과는 국내에서 소외 지역연구를 위한 하부구조를 확충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일반인들의 동남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중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한국은 이제 이주민의 증가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는 관광, 음식 등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동남아류”(Southeast Asian Wave)라고 부를 만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조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동남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찾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서 동남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산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우리 연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동남아 연구기관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동남아 연구는 아직 세계적인 동남아 연구의 변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지리적 인접성과 정치·경제·사회적 연관성으로 인해 한국도 동남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 동남아 지역연구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우리 연구단은 인문한국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 유수의 동남아 연구기관과 질적·양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와 학생이 연구와 교육의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하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유수의 동남아 연구기관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서며, 오히려 해외의 연구자들과 학생이 연구를 위해, 교육의 기회를 찾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을 실현하려 한다.

2. 사업내용

이런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 축을 상정하고 있다. 이 축은 다름 아닌 사람,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이다. 세계적 지역전문가의 육성으로 요약되는 사람, 연구 성과의 출판으로 집약되는 지식,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연구교류가 지속되는 네트워크의 세 가지 요소로 우리 연구단의 전략은 요약된다. 이런 전략을 실행에 옮길 사업계획은 1) 연구사업, 2) 학술 네트워크 구축, 3) 자료축적 사업, 4) 지식의 공유·확산 사업, 그리고 이런 모든 사업의 결과와 효과가 집대성된 5) 지역전문가 양성으로 나뉜다.



가. 연구사업

- 학제적이며 국제적인 개별연구·공동연구 추진
- 연구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
- 학제적, 교차주제적인 학술대회 진행

우리의 연구관련 사업은 ①개별/공동연구, ②연구클러스터 활동, ③학술대회로 구분된다. 단, 본 연구단의 향후 10년간 연구 아젠다 계획과 내용은 III장에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1) 개별연구와 공동연구

우리 연구단의 연구원들은 각 단계, 각 연차 마다 세부 연구주제에 대한 개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학술대회, 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단 내에서 또 국내적으로 공유하고, 가급적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를 발표하여 세계적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물이 국제적 수준의 전문 학술지를 통해 출판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연구원별 개인연구와는 별도로 공동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특히 우리 연구단은 학제적 공동연구를 추구한다. 우리 연구단의 개인-공동연구를 이끌어가는 전인차는 바로 아래 언급하는 연구클러스터다.

2) 연구클러스터 활동

우리 연구단의 개별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주제를 개발하여 연구클러스터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이 책임자는 클러스터를 운영, 발전시킬 자율성을 부여받으며, 자신의 재량으로 연구주제에 관련된 국내외 학자들을 공동연구원으로 끌어들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클러스터는 자연스럽게 개인연구, 공동연구의 장이 되며,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연구의 질적 향상의 효과를 가진다.

연구클러스터의 일차적 임무는 공동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연구결과물을 내는 것이고 공동연구자 간 정보공유와 연구의 방향성 유지, 그리고 확산을 위해서 연 6차례 월례세미나 또는 월례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연구클러스터는 일정 기간(1년) 후 개인연구성과물을 공유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점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며, 워크숍 1년 후에는 해당 연구결과물들을 영문단행본으로 출판한다.

3) 학술대회

우리 연구단은 학술대회를 매개로 국내외의 학자들과 지속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연장하고 학문적 성과의 축적과 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학술대회 조직의 기본단위는 연구클러스터가 된다. 서로 다른 본과학문에 기반을 둔 연구클러스터들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조직하여 학제적 교류를 도모한다. 일차적으로 공동연구가 학제적 교류를 담당하지만, 학술대회 역시 학제적, 교차주제적으로 구성되어 학제적 연구의 심화를 위한 이중적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각 연구클러스터의 책임자는 다른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3년에 적어도 1회의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출판할 것이다.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본 연구단은 전적으로 외국학자 초청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한다. 본 연구단은 학술대회의 절반 정도는 초빙이 아니라 동남아 관련 국내외 학술커뮤니티를 통해 주제를 공지하고 참가자를 공모하여 이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참가자들을 공모할 경우 경쟁체제로 논문 초록을 심사하여 학술대회에 참가할 사람을 선정하고 참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연구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참가경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나. 학술네트워크의 정착·발전

- 지속가능한 학술공동체인 학술네트워크 형성
- 동심원으로 확대되는 3단계 학술네트워크 건설

여타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식의 선순환적 재생산구조에 적합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의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는 그 관계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남지도 않고, 또 일부의 경우는 협정체결의 실적에만 연연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해외기관과의 네트워크는 공동연구, 학술대회, 워크숍 등 연구활동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단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는 협정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연구의 내실화를 통한 학문 공동체의 형성이다. 우리 연구단의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의 건설은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 제1단계: 동아시아 개별 연구기관 네트워크 건설

제1단계에서는 동아시아의 각 국가에서 적어도 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교류협력을 실시한다. 본 연구소는 이미 동아시아 연구와 관련된 외국 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추가로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기관들과 학술교류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외국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현황]

기관	협정	체결일자	협력내역
베트남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Vietnam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Studie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학술교류협정	2008. 1. 15	-연구자 상호 교환 -공동연구 진행 -정보 및 자료 교환 -연구자 초청
베트남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Politic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학술교류협정	2008. 1. 14	-연구자 상호 교환 -공동연구 진행 -정보 및 자료 교환 -연구자 초청

문명간대화협력센터 (Centre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among Civilisations)	학술교류협정	2008. 3. 25	-연구자 상호 교환 -공동연구 진흥 -정보 및 자료 교환 -연구자 초청
인도네시아과학원 지역자원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Regional Resources,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학술교류협정	2008. 3. 25	-연구자 상호 교환 -공동연구 진흥 -정보 및 자료 교환 -연구자 초청

2) 제2단계: 동아시아 연구기관 네트워크

제2단계의 네트워크 구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기존의 네트워크에 더하여 동아시아의 추가적인 연구기관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더욱 초점을 두고자 하는 방향인데, 우리 연구단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자 겸 연구소간 교류의 징검다리가 된다.

3) 제3단계: 네트워크의 세계적 확대

제3단계의 역점 사업은 네트워크의 세계적 확대다. 먼저, 동아시아의 연구기관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연구결과물을 생산하며, 다음으로 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다. 자료 축적 사업

- 도서와 1차 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집
- 국내외 기관과 자료공유를 통한 자료이용 효율 극대화
- 국가·지역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학술 서비스
- 일반인의 동남아 자료 접근성 개선

우리 연구단은 국내에 있는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관리, 수집하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의 동남아 관련 자료 상황은 1) 절대수의 부족, 2) 연구자가 필요자료 접근 곤란, 그리고 3) 자료의 산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산재된 자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이 절실하다.

1) 도서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

우리 연구단은 국내에 있는 동남아 관련 도서자료를 파악하고 새로운 도서의 획득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 연구진이 가진 동남아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목록을 만들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동남아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까지도 협조를 얻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외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파악하여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1차 자료의 수집과 관리

우리 연구단은 1차 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1) 동남아의 대외

교섭사, 2) 지역 문화에 대한 자료, 3) 문화의 확산, 전파경로에 관한 자료 등의 수집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주제들은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로 우리 연구단의 특색이 될 것이다. 자료의 수집과 아울러 이 자료의 목록을 제공하여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3) 국내외 기관과의 자료 공유 협력

자료실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의 기관과 자료 공유·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 연구단이 소재한 서강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자료의 공유, 자료실 구축 기술에 관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한국동남아연구소와의 자료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소는 단일 기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약 2,300여점의 동남아 관련 도서 및 문서자료와 850여점의 영상자료를 보유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우리 연구단은 미국 Ohio대학의 Alden 도서관으로부터 동남아 관련 도서와 자료 기증을 약속받았다. Alden 도서관은 미국 최대 규모의 동남아 관련 도서 소장 도서관 중 하나이며, 두 권 이상 수집되는 동남아 관련 도서 중 한 권을 우리 연구단에 기증하기로 합의하였다.

4) 국가별·지역별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우리 연구단에서는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실에 국가별, 지역별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세밀히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늘 최신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연구의 편의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것이

다. PDF, html 형태와 달리 웹상에서 필요한 자료, 시기 등을 골라 바로 볼 수 있는 동적 구조를 만들고 연구자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자료의 다운로드도 제공할 것이다.

5) 일반인 접근성의 개선

우리 연구단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공개될 것이다. 국가, 지역 기초자료와 1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이 허락하는 한 모두 웹을 통해서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도서, 문서, 영상자료의 경우 기술적으로 허락하는 한 일반인들에게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 우리 연구단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도 모두 디지털화 해서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 지식의 공유·확산 사업

- 연구클러스터, 학술대회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학술서 발간
- 동남아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SSCI급 학술지 창간
- 홈페이지/블로그를 이용한 효율적인 지식·정보 서비스
- 동남아 지식 확산을 위한 대중 교양서, 대중강좌 실시

1) 연구서 발간

세계 유수의 동남아 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는 우리 연구단은 가급적 학술연구의 성과를 영문으로 펴

낼 것이다. 또 우리 연구단은 많은 학술대회가 단지 학술대회 발표 문집을 내는 데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우리 연구단의 연구클러스터들은 공동연구의 결과물을 연구클러스터의 지속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단행본으로 출판해야 한다. 우리 연구단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들을 모아서 영문 단행본으로 출간을 지향한다.

2) 학술지 출판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만을 다루는 한글, 영문 전문학술지들은 많지만, 이 중에서 SSCI 또는 A&HCI 등재 학술지는 드물다. 동남아 연구는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충분하고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이에 본 연구단은 한국 동남아 지역연구의 세계화를 위해 하나의 전문학술지를 동남아 전문학술지로 만들어 SSCI급 전문학술지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연구단이 속해 있는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학술지에 관한 아무런 기반이 없던 상태에서 6년 만에 『동아연구』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만들었다. 따라서 학술전문지 출판과 이 전문지를 유수의 학술지로 만드는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연구소가 보유한 『동아연구』를 한글뿐 아니라 영어 및 기타 동아시아 언어로 발간해 다언어적(multi-lingual) 학술지로 만들어 SSCI 학술지를 만들거나 영어로 출판되는 전문학술지를 새로 창간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학술지가 본 연구단에 의해서 SSCI에 등재된다면 한국의 지역연구의 지평과 위상을 높이는 쾌거가 될 것이다.

3) 연구 성과의 공유: 연구단 홈페이지 블로그

우리 연구단은 부족하거나 오류투성이인 웹상의 동남아 관련 정보의 대안으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제공할 것이다. 지나친 의욕만 앞세워 빛을 보지 못한 과거 다른 프로젝트팀들의 동남아 포털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연구 성과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

가) 학술기능

우리가 추진하는 홈페이지/블로그는 1)학술, 2)정보제공, 3)네트워크의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학술기능은 주로 블로그에서 일어나는데, 학술대회 정보와 내용이 서비스되는 학술대회 페이지, 각 연구클러스터들의 의사소통과 결과물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연구클러스터 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저널이 제공된다.

나) 정보제공

정보제공기능은 동남아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도서·자료 검색으로 구성된다. 지식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적인 지식은 물론 동남아 개별 국가와 지역에 대한 개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심도 있는 정보와 지식까지 서비스 하는 페이지이다. 도서·자료 검색기능은 한국동남아연구소와 우리 연구단, 그리고 각 대학도서관을 연결하여 동남아 도서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다) 네트워크 기능

네트워크 기능은 메일링 리스트와 국내외 동남아 관련 연구기관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메일링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아

보길 원하는 독자에게 이메일로 정보들이 서비스 되는 것이다. 이 정보는 단순 활동부터 학술대회 소식, 신간소식, 동남아 학술정보, 학회-연구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연구기관의 연결기능은 국내외의 동남아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여 기관, 연구자의 정보를 제공하며 링크를 통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라) 동남아 지식의 대중적, 사회적 확산

학술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문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학문의 사회적 환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중의 고상한 욕망과 소통할 수 있는 대중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연구단의 대중화사업은 크게 대중교양서의 출간과 대중강좌로 나뉜다.

(1) 대중 교양서 출간

우리 연구단은 연구인력들에게 자신의 연구주제 관련한 대중교

양서를 출간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대중에 대한 파급력에 있어 그들의 언어로 쓰인 대중교양서는 학술서적보다 뛰어나다. 대중교양서는 일반인들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상승시키고 더 많은 동남아 지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동남아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동남아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에서 잠정적으로 기획한 동남아 관련 대중교양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중교양서(가제)]

새콤달콤한 동남아 음식
 동남아 시장에는 남자가 없다
 흥미진진한 동남아 뒷골목 풍경
 동남아의 귀신, 동남아의 사만
 메콩강을 따라 인도차이나를 가다
 사통팔달 동남아 - 수마트라에서 동티모르까지
 동남아의 유럽, 유럽의 동남아

(2) 대중강좌

대중강좌는 대중교양서보다 능동적으로 일반대중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일반 시민에 대한 공개강좌뿐 아니라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 아시아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는 국제교류재단, KOICA 등 동남아 지식 수요가 있는 곳에 맞춤 강의를 필요하다. 또 방송매체를 통해 동남아 지식을 전달하는 보다 효과적인 대중강좌도 계획하고 있다.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여 우리 연구단의 지식을 환류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며, 신문의 연속기획물 등의 형태로 본 연구 인력의 연구결과를 지상강의 하는 것도 대중적 확산의 측면에서는 매우 효

과적인 방법이다. 1단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중강좌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열린 강좌 (가제)]

동남아의 찬란한 슬픔의 역사 (역사)
섬, '아일랜드' 그리고 동남아 (특성)
동남아의 이슬람, 아랍의 이슬람 (종교)
동남아 - 뱃길 따라 문명 따라 (사회)
동남아 여성과 서구 페미니즘 (여성)
다문화시대의 동남아, 동남아의 다문화 (문화)

마.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 종합적 학술 능력과 학문 수준을 겸비한 세계적 지역전문가 배출
- 공정하며 투명한 연구자 평가지표에 의한 성과관리
- 심화된 강의, 현지어 능력, 현지경험을 고루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
- →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기관과 연구자

1) 세계적 지역전문가 양성

우리 연구단은 사업 목표에서 단기적 목표로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동남아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관들을 넘어서 세계적인 동남아 연구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계적 지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다.

가) 영문·현지어 출판

지역연구의 특성상 우리 사업단의 연구 결과는 영문으로 출판되어 국제학술 공동체에서 읽히고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 연구단은 각 연구클러스터의 연구결과를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발표하고 그 결과물을 영문 단행본으로 출간할 것을 권장할 것이다. 연구원 개인 연구의 국내외 전문학술지 투고 역시 마찬가지다. 또 우리 연구단의 주제가 특정 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결과물이 현지어로 출판될 수도 있다.

나) 학제적 연구방법과 결과물의 제도화

연구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공동연구와 소통은 연구의 질적 계고와 학제적 연구의 제도화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 다양한 분과학문의 연구자들이 상호작용 속에 다른 분과학문의 방법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한다. 학제적 연구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가 된 지 오래다. 정치학 분야의 동남아연구만 보아도 스콧(James Scott)이나 앤더슨(Benedict Anderson)과 같은 거장은 예외 없이 학제적 연구방법을 이용해왔다.

다) 연구클러스터의 책임자 역할 수행

우리 연구진은 연구클러스터의 책임자 역할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연구자로 거듭날 것이다. 세계적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클러스터 운영자들은 그들의 연구방법, 연구소 운영방법 등을 벤치마킹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 책임자들은 스스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어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세스 개념도]



라) 연구 진작 분위기 조성

우리 연구단의 연구원이 세계적인 지역연구자로 성장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단은 최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교수 기준으로 강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한 학기에 2 과목 이하로 강의를 제한한다. 그 대신 연간 두 편 이상의 동재(후보)급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3년에 한 편 이상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3년 단위로 한 권의 동남아 대중교양서를 저술할 것을 권장한다.

2) 학문 후속세대 양성

우리 연구단의 후속세대 양성계획은 1) 강의의 개선, 2) 현지어와 분과학문의 소통, 3) 현지 경험의 지원과 확대, 그리고 4)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가) 강의의 개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심화된 강의가 요구된다. 우리 연구단은 팀티칭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한 과목 강의 안에 주요 분과학문, 동남아와 중국, 인도, 유럽 등 주변지역 연구를 포함한 학제적 강의를 실시한다. 연구단 내외의 동남아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동남아 펠로우십 특강”을 매월 실시하고, 펠로우들 자체 세미나를 지도한다. 이와 함께 현지탐방·연수 프로그램을 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우리 연구단이 공동연구·연구클러스터 활동으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협조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 언어와 분과학문의 소통

한국의 지역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현지어 교육과 분과학문의 불균형인데, 이를 시정하는 실험적 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지어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어 집중과정을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12개 대학 연합의 동남아연구여름학교(SEASSI: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와 호주 머독대학교(Murdoch University)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현지학습을 위한 호주콘소시엄(ACICIS: Australian Consortium for 'In-Country' Indonesian Studies)을 벤치마킹한다. 우리는 실험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4주 정도로 언어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는 자체 모델을 개발하여 언어 학습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연구단의 언어집중교육 프로그램은 동남아 지역연구를 전공하려는 특정한 집단을 초점으로 맞춤형 현지어 강의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 현지 경험 확대와 지원

현지 경험은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정의 출발점이다. 현지 경험은 잠재적 지역연구 후속세대를 끌어들이는 유인이 되고, 현지 조사는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우리 연구단은 앞서 언급한 동남아 펠로우십을 통한 현지 방문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현지 경험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연구원들의 현지조사 시에 학생을 동반하거나 다양한 현지조사 지원의 소스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한국동남아연구소, 한국동남아학회, 포스코청암재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학생들이 현지 경험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동남아인들과 어울리며 간접적으로 동남아를 체험하고 현지어 학습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에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라)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

한국의 상황에서 동남아를 전공한 전문가와 전공하려는 학생은 소수로 서로 다른 학교에 분산되어 분포하고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 분과학문, 관심국가를 지도해줄 수 있는 지도교수를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 연구단은 연구단에 연계된 학생들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단에 가급적 많은 동남아 전문가를 포진시킬 것이다. 또 우리 연구단의 연구원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연구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과학문, 관심분야, 연구지역이 일치하는 전문가를 소개받아 비공식적으로라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연구단은 기관 차원에서도 가장 동남아 관련 연구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동남아연구소와 한국동남아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가. 동남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본 연구가 지향하는 열린 체계로서 동남아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은 동남아가 중국과 인도 등 외부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은 폐쇄적인 지역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을 통해 다층적이고 복합적 문화를 형성한 열린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의 보편적 발전모델의 대안인 우리 연구는 특정지역에 대한 학문의 불균형과 그동안 폄하되어온 동남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좋은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시각으로 열린 지역체제로 동남아를 연구한 우리의 성과물과 다양한 활동은 동남아를 바라보는 서구중심의 헤게모니적 태도를 경계하고 성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한 동남아의 역동성과 창조적인 특성은 국내외 학계에 만연한 서구 중심의 관점과 패러다임의 대안적 모델과 자료가 되어 서양과 동양, 중심과 변방, 계층의 구분을 넘어 대등한 상호인식이 요구되는 현 세계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나. 세계적 연구소, 연구자로 도약

우리 연구단 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 연구소로의 도약이고, 그 핵심에는 개별 연구자들이 세계적 동남아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제가 있다. 우리 연구단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전 세계의 동남아 연구자 집단에 의해 읽히고, 인용되고, 평가되어 HK 연구인력 개개인의 국제적 명성과 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동연구를 위해 외국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학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을 먼저 찾게 될 것이고, 외국의 잠재적 동남아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하기 위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연구단 차원에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우리 연구단이 벤치마킹 할 곳은, 연구클러스터 활동이 활발한 싱가포르대학의 Asia Research Institute, 연구의 조직화와 연구 결과를 출판으로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제공에 뛰어난 일본 교토대학의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교육 프로그램이 뛰어난 미국 코넬대학의 Southeast Asia Program, 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의 Centr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그리고 학제적 연구와 네트워킹에 뛰어난 덴마크의 Nordic Institute for Asian Studies 등이다. 우리 연구단은 10년 후 이들 연구소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국내 지역연구의 선도적 모범

국내 지역연구의 선도적 모범이 되겠다는 목표의 구체적 기대 효과는 우리 연구단의 사업과 연구 경험을 다른 지역연구 기관, 연구자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연구단은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경과와 결과, 연구의 추진과 결과, 연구소 운영 방안 등 이후 다른 지역연구기관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국내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단에서 출판한 연구서와 대중 교양서들은 국가기관의 도서관, 대학도서관,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들에 널리 배포될 것이

다. 이렇게 배포된 도서들은 국내 동남아 연구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동남아 펠로우십은 연간 1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그중 1/5만이라도 학업을 지속한다면 매년 2명의 동남아 지역연구자를 산술적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배출된 동남아 전공 한국 학자는 총 20여명이다. 전국적으로 1년에 약 4명 꼴의 동남아 지역전문가가 탄생했다. 따라서 우리 연구단과 대학이 단독으로 매년 2명의 동남아 지역연구 전공자를 배출한다면 이는 대단한 성과다.

라. 동남아 지식의 대중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연구단은 1차 자료, 국가-지역 기초자료, 워크숍 발표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등을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비스 할 것이다. 우리의 대중화작업은 동남아 이주자와 동남아문화의 소비가 증가하여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동하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필리핀인과 베트남인 등 동남아인을 경멸하는 기존의 '인식론적 폭력'을 교정할 수 있는 사례와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서구유럽을 좋게 인식하고 그곳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사람도 동남아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열등하고 낙후한 세상으로 아는 경우가 다반사인 오늘날의 우리의 강의와 저서, 그리고 연구결과물 발간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III. 연구 계획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가. 연구 목적

- 안과 밖이 연동되는 열린 지역체계 개념의 정립
- 동남아 연구의 새로운 동기부여와 파급력 신장
- 세계적인 동남아 지역연구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형성

이 연구는 우리 연구소를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동남아 지역연구 기관으로 도약시키는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 연구패러다임의 구축을 추진한다. 그 동안 동남아는 부정형적 분산, 분열 상태에서 식민화, 근대화, 지구화의 압력을 받아왔고 그러면서도 후진적 일관성을 노정하는 무력하고 정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곤 했다. 그래서 동남아라는 지역은 ‘종속의 영지’로 간주되거나 반대로 ‘이탈의 보루’로 다루어지는 모순적 인식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호한 대상으로 내버려진 지역의 정체에 관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우리의 인식을 옥죄는 모순을 풀어낼 수 있는 인식들을 찾아 나섰으며, 그 핵심 고리로서 “열린 지역체계”라는 시각을 끌어내고자 한다.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란 이 지역이 ‘안’과 ‘밖’이 능동적으로 연동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시각으로서 우리

를 동남아의 창조적이고 다채로운 정체성으로 이끌어주는 발전의 '항해술'을 제공할 것이다. 동남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부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였다는 점에서 열린 체계이고, 외적 문명이 일방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내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열린 체계이며, 그것을 일상세계와 환경에 맞게 적절히 변용해 현지화하고 역으로 다시 외부에 확산하였다는 점에서 열린 체계이다. 따라서 열린 체계로서의 동남아는 외부와 내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조적 능동성과 화려한 정체성을 산출하는 세계적 환류의 공간으로서 상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동남아는 세계적인 문명이 반도와 군도의 고유한 맥락을 통하여 끊임없이 넘나드는 사통팔달의 열린 지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동남아 지역연구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동남아는 식민과 전쟁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역사적으로 얽히고, 투자와 교역의 핵심적인 동반자로 자리를 굳히고, 인구의 유입으로 문화적 전환을 유발하며, 동아시아 협력의 중재자로 떠오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운명과 깊이 연관되고 있지만, 우리네 연구의 축적과 연구자의 확산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연구의 미진한 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시각의 문제이다. 동남아를 인도, 중국, 이슬람, 서구 등 거대문명 중심으로만 인식한다면 동남아연구의 필요성은 낮게 인식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거대문명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면 동남아연구의 고립을 자초하여 그 파급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따라서 안팎이 연동된 열린 지역체계로서의 동남아 인식은 동남아연구에 생산적 활력을 불어넣고 그 성과물의 학술적 파급력을 신장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열린 지역체계'라는 인식은 '열린 지역연구'라는 방법론

을 요구한다.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동남아연구자들이 동남아의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지역에 시야를 국한하는 고립적 자족성에 안주해서는 열린 지역체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지역의 연구자들과 개방적으로 소통할 것이고, 중국, 일본, 동남아 간의 협동연구를 추진해온 본 연구소의 전통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역’이라는 개념은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으며 터구나 역사와 문화와 발전에 관한 우리의 연구과제는 특정 분과학문에만 의존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학제성을 견고하게 지향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역 간 학문간 열린 동남아 연구 방법론과 지역인식틀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연구의 새로운 소통적 지평을 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는 열린 지역체계 연구를 통하여 우리 연구소를 세계적인 동남아연구의 중심 중의 하나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유럽의 동남아 연구는 과거 식민대상국 연구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고, 미국은 하나의 지역으로서 동남아를 상상하였으나 단극체제의 이점에 도취되어 남미와 중동을 제외한 지역연구 전반의 쇠퇴를 자초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연구에 집중하고 그나마 통합적인 연구기반을 지닌 싱가포르를 정책연구를 주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분히 인문학적인 본 연구에 10년간 매진함으로써 세계적인 동남아연구 지형 속에서 일본과 호주의 연구센터들과 견줄 만한 새로운 중심으로 우리 연구소를 끌어올리는 역사적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나. 기존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방향

동남아는 오랫동안 주변부 혹은 ‘아시아의 동양’으로 여겨졌다. 통합이 어려운 폐쇄적 영토와 정체성을 정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집합으로도 인식되었다. 근대 이후 서구세계는 동남아를 ‘말없이 누운 채 목도되는’ 수동적인 지역으로 시술하고 동남아에 대한 외부세계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남아는 외부 문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영향을 받았지만 특정한 문명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냉전체제가 성립된 후 등장한 동남아 지역연구는 제국주의적 논리로 동남아를 파악해 동남아가 블루칩으로 부상하는 오늘에도 동남아인의 능력과 경험을 과소평가하고 동남아의 내적 변화와 가치를 간과했다.

기존의 정치학에서는 열린 체계로서 동남아라는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학적 지역연구의 출발이 냉전의 시작과 중첩되었고, 열강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주제들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McCargo & Taylor 1996; Chou & Houben 2006). 그 결과 동남아를 하나의 유기적 지역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별, 종족별로 해체하여 나열하는 연구가 대세였다(Kahin 1964; Riggs 1966; Neher 1991; Doner 1991). 이런 분위기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내 연관성이나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는 설 자리가 없었다. 최근에 세계화와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세안 또는 동남아 지역통합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나(Acharya 2000; Pempel 2006; Beeson 2007) 현상과 전략에 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지역체계의 실체나 외부와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하다.

문화상대주의가 주도하는 인류학적 연구는 진화주의가 극대화시킨 자문화중심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했으나 동남아사회의 미시적

인 문화적 특수성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다(Eggan 1941; 1967; Leach 1954; Geertz 1960; Hickey 1964). 인류학 연구는 동남아가 서구와 질적으로 다른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치밀한 현지 연구를 통해 밝혔지만, 열린사회에 대한 연구에는 닫혀 있었다. 동남아는 비서구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처럼 원초적 낙원으로 외부 문명의 침탈에도 곳곳하게 변하지 않는 낭만적 소전통으로 그려졌다. 인류학은 서구중심적 시각을 탈피하려고 했지만, 동남아가 서구뿐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비교적 열린 시각으로 동남아를 바라보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동남아의 참다운 내생적 모습이란 다양성, 분산성, 유동성과 소통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역사연구도 나왔다. 가령, 리드(Reid 1988)는 동남아라는 지역이 15-17세기 교역의 시대에 해상무역 과정의 소통 및 인구 이동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월터스(Wolters 1982)는 동남아의 정치체제를 만달라(mandala)라 칭했다. 교역에 초점을 두고 유동적 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군주제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Andaya 1993; Tambiah 1976; Geertz 1980; Vickers 1986).

기층민에 관한 관찰을 통해 동남아 사회의 문화적 기제와 에토스를 도덕경제, 합리적 농민, 약자의 무기 등의 개념으로 표현한 연구들은 이후 학문분야와 연구 지역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Scott 1976; 1985; Popkin 1979; Kahn 1993; Pemberton 1994; Iletto 1979). 최근에는 상상의 실체(Anderson 1998)라는 맥락에서, 초국경적 도시, 이주 및 디아스포라, 초국가적 중산층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열린 체계에 관한 인식

의 단초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제한된 주제에 국한하여 진행되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우리 연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곧 주변적, 종속적, 무(無)역사적 공간으로 폄하되어 온 동남아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문명화, 지역 간 교섭, 문화 전파, 세계화와 같은 초 지역적 상호작용이 실천된 이 지역을 '열린 체계'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열린 체계로서 동남아연구를 위해 국가 중심적 지역연구 경향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국가단위의 거시적 연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 성립과정이 인위적이고 상상된 것이라도 국가는 이미 실재하며, 국가내의 다양성이 국가의 틀 안에서 통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는 기존 연구의 긍정적인 유산을 계승하되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 소홀했던 분산적이고 유동적인 주제에 관한 미시적 관찰과 함께 초국가적, 거시적 대상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열린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균형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 연구는 지역체계를 탈경계적인 개방적 연구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다. 동남아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집단, 사회도 경계 안과 경계 밖 혹은 그 사이를 오가는 주체이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유동적 주체들에 관한 연구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관념, 가치, 행동, 계도로 구성되는 동남아 문화의 본질에도 개방성, 소통성, 유동성의 성격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앞으로 그러한 성격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열린 지역체

계 페러다임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성격을 소지한 동남아적 주제들과 역사, 문화, 정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추진 전략

가. 단계별 연구 목표와 주제

본 사업의 비전이자 목표가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를 추구하므로 단계별 연구 주제의 구성에도 동남아가 외부와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 내부에 영향을 주어 본질을 형성하거나 변화시켜왔다는 점을 반영할 것이다. 열린 동남아와 관련된 세계적 소통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한 방향은 외래 요소가 동남아로 들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의 문화가 외부로 나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외부세계가 동남아를 어떻게 상상했고,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동남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남아가 외부세계로 나가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외부의 영향과 인식을 중심으로 보는 동남아 지역의 지형도 구성하기, 둘째, 동남아 속 다양성과 통일성 및 특수성과 보편성의 분석을 탐색하기, 셋째, 동남아가 외부에 끼친 영향과 열린 지역체계 및 지역정체성의 심화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동남아를 세계와 연결하기 등 세 가지 순차적인 단계별 대주제를 중심으로 전체를 구성한다.

[단계별 연구 목표와 주제]

단계	목표	대주제	핵심 개념
제1단계 (1-3년차)	열린 동남아를 상상하다 Mapping Southeast Asia as an Open Regional System	외부와의 접촉과 동남아 '지역'의 형성	-동남아 지역 인식 -동남아 속의 세계 -다원주의와 복합 사회
제2단계 (4-6년차)	동남아의 본색을 탐구하다 Constructing Southeast Asian Cultural Mosaic: Continuity and Changes	동남아의 문화적 모자이크의 재조 명	-관념과 가치 -제도과 사회관계 -전통의 재구성 및 정체성
제3단계 (7-10년 차)	동남아를 세계와 연결하다 Envisioning and Expanding of Southeast Asia: Toward the Globe	열린 동남아 지역 체계 패러다임의 구축과 심화	-세계로 열린 동남아 -지역정체성 -갈등과 도전 -미래와 비전

1) 제1단계: “열린 동남아를 상상하다: 외부와의 접촉과 동남아 ‘지역’의 형성”

이 단계의 목표는 외부 영향이 상호 소통으로 동남아 지역체계로 내면화 혹은 현지화 되어 동남아를 구성하게 된 과정과 내용을 탐구하여 동남아 지역체계의 지형도를 그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제1단계 연구가 공통으로 정의하고 활용하게 될 핵심적 개념은 동남아의 지역 인식, 동남아 속의 세계문화, 문화적 다원성과 복합사회 등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단계에서 오리엔탈리즘, (탈)식민주의, 전통과 근대성 등 동남아 문화지형의 인식방식과 관련된 키워드들에 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인도화, 이슬람화, 중국화, 서구화, 근대화, 세계화 등의 역사적 과정에서 외부적인 것이 동남아 안에서 조화와 배제, 적응과 일탈을 구성하는 과정과 방식

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남아 문화의 다중성 및 복합사회의 근원과 경로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인 이해로 종결될 것이다.

2) 제2단계: “동남아의 본색을 탐구하다: 동남아의 문화적 모자이크의 재조명”

이 단계의 목표는 동남아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내부의 역동성 및 다양성과 통일성을 고찰하여 동남아의 본질적인 문화적 매트릭스의 분화 및 조화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인과 동남아 문화에 녹아 있는 관념과 가치의 원형을 살피고, 그것이 제도와 사회관계의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떠한 증거를 부여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또한 국민국가 형성 이후 전통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전통이 재창조되는 면모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를 탐구할 것이다. 제2단계는 본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동남아적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 골격을 채워나가는 핵심적 단계이다. 동남아의 종족별, 국가별, 지역별 문화적 에토스에 관한 비교연구,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총체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문화변동과 문화적 정체성의 내부 분화 및 갈등에 관한 심층연구, 전통의 재창조와 실용적 변용에 관한 분석 등, 이 단계에서 수행될 연구주제도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것이다.

2) 제3단계: “동남아를 세계와 연결하다: 열린 동남아 지역체계 패러다임의 구축과 심화”

이 단계는 우리 연구소가 10년간 수행할 연구과제를 종합하고 새로운 대안을 구축한다. 제3단계의 연구는 외부와의 소통과 내부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동남아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열린 동남아 지역체계가 세계 속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한다. 우리는 먼저 동남아에 관한 인식이 외부에 의해 형성되어 온 측면을 탐색한 제1단계 연구와 역방향으로 세계로 향해 열린 동남아의 인식을 탐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동남아 사람과 동남아 문화의 영향에 관하여 비교하여 연구한다. 또한 세계화 과정 속의 동남아 지역정체성과 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탐구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열린 동남아 지역체계의 미래와 비전을 모색할 것이다. 제3단계 연구를 통해 열린 지역체계 패러다임과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우리의 연구는 세계적인 의미에서 지역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더욱 긴밀하게 펼쳐질 초국가적, 초지역적 문명 교류와 소통을 추동하는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 연구 추진 전략과 시각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동남아 지역연구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으나 국가별 단절, 지역별 고립, 학제 간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한국의 지역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동연구도 대개 개별연구의 집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진정한 의미의 학제적 연구나 통섭과는 거리가 있었다. 우리 연구는 다양하고 상이한 분야 전공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학제적 연구를 도모할 것이다. 나아가 각 지역연구의 소통, 곧 역제적(域際的) 소통도 시도할 것이다. 우리 연구는 동남아와 역사적

연관이 있는 여타 지역 전공자의 참여를 통해 지역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나아가 생태, 환경, 지리 등 자연과학적 연구결과를 차용하고 예술사와 예술비평의 방법도 활용하는 등 열린 시각과 열린 연구방법을 채용한다.

이 연구가 지향하는 “열린 연구”는 단순한 평면적 교류와 기계적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 초점을 두는 주도적 시각과 선도 연구 분야의 역할을 포함한다. 가령, 외부 요소가 동남아 속에 내면화되는 역사에 초점을 두는 제1단계 연구의 경우 역사적 접근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역사학 관련 분야가 학제적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남아 문화의 본색에 관해 연구하게 될 제2단계의 경우 당연히 문화적 접근이 중심이 될 것이고, 문화인류학 관련 분야가 소통을 주도할 것이다. 세계 속에서 동남아 지역정체성의 비전을 모색하게 될 제3단계 연구에서는 정치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이 선도할 것이다. 각 단계별 선도 연구 분야 외에, 종교학, 지리학, 사회학, 민속학, 박물관학, 예술사, 여성학, 정치경제학, 국제관계학 등의 접근시각과 이론 및 방법론이 단계별, 연차별 세부 연구 주제에 따라 상호 교차적으로 학제적 연구에 참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추진전략은 입체적, 유기적 통섭이다. 즉, 각 단계의 중심적인 시각이나 선도 연구 분야는 다른 다양한 연구 분야의 방법이나 시각, 이론과 주요 개념들과 상호작용과 소통 및 환류를 통해 개별 연구를 주도하면서 전체 연구 과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연구클러스터에 국내외 전문연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단계별 접근시각 및 주요 연구 분야]

단계	접근시각	선도 연구 분야	핵심 연구 분야
제1단계	역사적	역사학/종교학	종교학, 지리학, 역사인류학, 지식사회학, 미술사, 자연사, 박물관학
제2단계	문화적	문화인류학/역사인류학	문화사, 문화사회학, 비교정치학, 여성학, 민속학, 박물관학, 생태학
제3단계	정치적	정치학/국제정치학	정치인류학, 정치경제학, 국제관계학, 사상사, 역사학, 언론학

3. 단계별 세부 연구계획

가. 제1단계 연구계획

제1단계 연구는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라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단련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제1단계 연구에서는 동남아에 관한 외부의 인식과 외부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 및 동남아적 변용에 관한 역사적, 비교론적, 학제적 이해를 추구한다.

[제1단계 연차별 연구주제 및 연구클러스터]

연차	주제	연구 클러스터별 주제
1년차	동남아 지역 인식과 “동남아학”의 계보	동남아 ‘지역’ 인식
		동남아 ‘학’의 계보와 동남아 연구
2년차	외부 세계의 영향과 동남아적 변용	인도/중국/이슬람 문화의 영향과 동남아화
		서구문화의 영향과 동남아 속 한국/일본 문화
3년차	식민주의-탈식민주의와 복합사회의 형성	식민 통치의 영향과 동남아 사회의 재편
		이주와 복합사회의 형성

동남아라고 칭해지는 이 지역은 복합적인 인종과 종족 구성, 다양한 언어와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다원성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현재 11개국 총 5억의 인구를 가지고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 혹은 동아시아의 남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다양한 내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남아라고 지칭되고 상상된 지역으로서 동남아시아는 여러 개의 동남아시아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도 이 지역의 주민들은 스스로를 ‘동남아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부족하다. 따라서 단순히 국경을 가진 국가들의 집합체로서 지역을 개념화하는 태도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동남아시아라고 일컫는 이곳을 ‘지역’으로서 인식하게 하는 근원과 경로는 무엇이며, 그러한 인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동남아를 구성하게 된 외부적 요소와 그 변용의 내부적 역동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 먼저 동남아 밖에서 고찰한 후, 그 밖으로부터의 영향이 들어와 앉은 형국을 안과 밖을 오가며 살피고, 결과적으로 동남아의 복합성이 증척되는 역사적 과정과 결과를 검토할 것이다.

나. 제2단계 연구계획

제2단계 연구는 “동남아의 본색”을 탐색하고, 동남아적 전통의 변화 혹은 재창조의 역동성을 해석한다. 제2단계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동남아의 본색은 근원주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폐쇄적인 동남아의 본원적 소전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남아의 본색이 외부의 소통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화와 경합을 통해 만들어져 왔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문화에 본질적인 특이성이 초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라는 입

장도 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제2단계 연차별 연구주제]

연차	주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1년차	관념과 가치	생로병사의 인식과 세계관의 구성	상징과 의례를 통해서 본 동남아의 성(聖)과 속(俗)	전통적 권력 개념과 사회적 위계
2년차	사회관계와 제도	동남아의 사회제도와 규범	동남아 문화적 모자이크의 지형도	공동체의 정치적 구성과 사회분화
3년차	전통의 재구성 및 정체성	국민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전통의 재창조와 현대적 변용	문화정책과 민족정체성의 발현

문화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상호 연관된 체계로서 구성된다. 첫째는 ‘문화적 지식’ 혹은 ‘문화적 사고’로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나 구도, 또는 자신의 경험과 주변의 사물들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등 관념적 영역을 말한다. 둘째는 그러한 정신 활동의 산물이자 동시에 정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사물로서 ‘문화적 사물’이다. 셋째의 영역은 ‘문화적 행위’인데, 이것은 사회의 규범, 삶의 목적과 구도, 경험과 사물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들이 반영된 것이다. 문화적인 행위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르는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소통되고 제도에 따라 규범화된 행위이다.

제2단계 연구는 모두 3개년의 연구로 구성된다. 우선 2년간은 관념·가치적 측면과 제도·관계적 측면을 구분하여 동남아의 본색문화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각각 1년씩 수행하고, 제3년차에는 전통의 현대적 재구성 및 정체성의 변화를 다

룬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마을단위의 사회들과 주요 종족의 일상 세계에 관한 미시적인 현장연구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다.

다. 제3단계 연구계획

제3단계 연구는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에 관한 탐구가 주요 내용이다. 즉, 외부세계와의 교섭을 통해서 동남아적 요소가 세계사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남아의 가치와 비전이 보편적 가치나 비전과 소통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았음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동남아를 열어 세계와 연결하고 세계 속에 동남아가 존재함을 통찰하고, 세계의 미래와 비전에 동남아 지역체계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한다.

[제3단계 연차별 연구주제]

연차	주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1년차	세계 속의 동남아	동남아인의 이주사	세계 속 동남아인 디아스포라	국제질서/국제관계에 대한 동남아의 인식
2년차	동남아 문화의 확산과 소통	세계 속 "동남아류"의 역사적 전파와 확산	탈영토화된 동남아 민족 문화	세계 속의 동남아 지역 협력
3년차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새로운 도전	동남아 지역정체성의 체현과 재구성	동남아 문화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정체성	동남아 지역 정체성의 새로운 도전
4년차	지구화 과정의 열린 동남아 지역체계	동남아 지역체계의 성장과 확산	동남아 문화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혼성성	동남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미래와 비전

제3단계 연구에서는 동남아가 외부와 소통하며 영향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동남아 내부로부터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목한다. 우리는 근래 동남아의 지역정체성 구축을 위한 노정에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등장하며, 여러 가지 이념적, 정책적 담론들이 상호 경쟁한다는 점도 적시한다. 가령, 1967년 창설된 ASEAN은 창립 40주년에 즈음하여 ASEAN 현장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경제공동체 창설에 합의하였고, 향후 정치안보공동체 및 사회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10개 국가는 각각 국가 중심적인 지역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국가적' 혹은 탈국가중심적 지역정체성 개념이 부상하여 동남아 지역체계 형성의 새로운 도전이자 실험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 속으로 열린 동남아가 그러한 경험을 지역협력의 확대와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고찰한다.

제3단계 연구가 세계 속의 동남아를 고민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동남아의 외부 진출 혹은 동남아 밖에서의 동남아와 세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열린 지역체계라는 개념과 접근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3단계 연구 대상은 동남아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사람과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의 여러 지역이다. 따라서 연구방법도 해외의 동남아인과 세계 속 동남아 문화에 대한 다(多)현장적(multi-sited) 연구를 실시한다. 동남아인의 이주와 세계 속 동남아 문화에 관한 연구는 해외 동남아인의 생활세계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간 동남아 사람과 문화가 다시 동남아로 환류하여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동남아 지역체계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현장적 연

구는 열린 지역체계의 모색과 관련된 핵심적인 대안적 연구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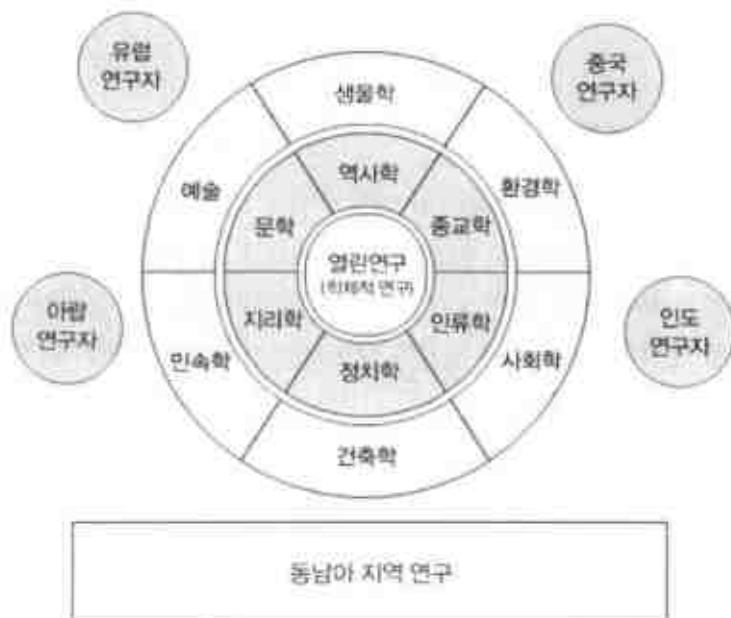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 지역의 거시적·미시적, 구심적·분산적 동태를 총체적으로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다 전방위적으로 “열린”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와 접근시각의 연계와 균형을 강조하는 연구형태 및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가. 연구 형태: 전방위 학제적·역제적(域際的) 연구

1) 학제 간 연구

우리 연구진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망라한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전공분야별 개별연구뿐 아니라 공동연구를 통해 학제적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첫째, 연구클러스터별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학제적 비교와 종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특정 분야에서 훈련된 개별 연구자들이 여타 분야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개별연구에서도 학제적 소통을 실행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역사학자들이 사료분석을 넘어 정치학 이론이나 인류학적 관찰법을 채용하고, 인류학자는 거시적 담론이나 통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정치학자들이 미시적 촌락에서 현지연구를 수행하고 구술채록방법도 채용할 것이다.

2) 문리(文理) 간 연구방법의 통섭



동남아 지역체계에 대한 심층적,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생태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남아 문화의 본색이 강, 산, 흙, 생물, 기후 등의 자연적 요소와의 상호작용과 적응의 결과이므로, 자연과학에서 생산된 지식은 매우 유용하다. 최근에는 환경, 질병, 자원 등의 초국가적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 자연과학과 공학적 지식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였다. 가령, 지역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된 세부 주제로서 인도네시아 주부의 환경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류학, 여성학, 국제관계학뿐 아니라 환경학이나 행정학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리 간 통섭연구를 통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 연구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역제적(동남아 외 지역 연구자와의 지역 간) 연구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체계가 대상인 우리의 지역연구의 범위는 동남아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는 동남아와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관련이 깊은 인도와 중국,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하여 동남아 지역 체계를 세계와 관련 속에서 연구하는 다(多)지역연구 간 공동연구를 지향한다.

나. 구체적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사료, 정책자료, 통계, 현지문헌 등의 수집과 분석은 이 연구의 기초적인 방법이다. 공식적 문헌자료는 물론, 문학텍스트, 영화와 같은 시청각자료, 구술자료 등 아래로부터의 비공식적 자료가 포함된다. 특히 문화연구와 포스트콜로니얼 연구는 텍스트에 기반을 둔

다. 동양과 서양간의 인식론적 구분을 창조하는 데 기여한, 서양에 의해 재현되고 지지된 이념적 관점이 탑재된 문헌을 채집하고 분석하여 서양이 왜곡한 동남아를 재구성할 관련 연구들은 서구중심주의를 지양하고 동남아의 상대적 진리와 그들의 방식, 즉 열린 지역으로의 동남아에 주목하는 우리 연구에 필요한 과정이다.

2) 현지조사

우리는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고 현장에서의 동태적 연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에서 공식, 비공식적 문헌을 수집하고, 미시적 대상에 대한 설문,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 현지조사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남아의 안과 밖, 그리고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다현장적 현지조사 방법도 활용할 것이다.

3) 문화-역사-정치의 교차적 비교 연구

이 연구는 단계별 핵심 연구주체에 따라 주도적인 연구 분과를 기준으로 역사, 문화, 정치적 시각과 방법을 상호 교차적으로 활용하는 다차원적 비교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정치학에 초점을 둔 비교방법은 이론적 일반화를 추구하여, 기존의 이론을 특정 국가나 지역에 적용하여 강화하거나, 일탈사례를 통해 기존 이론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론 구축을 추구한다. 역사적 비교는 동남아 역사를 인도, 중국,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역사와 비교하는 지역 간 비교와 동남아 내부의 공통점과 보편성의 역사적 형성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로 구성된다. 문화적, 인류학적 비교는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종족 간, 사회 간 비교를 의미한다.

4) 미시-거시적 통합연구

본 연구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종합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가 한 개인의 행위에서 국가, 지역 및 세계체제에 이르는 다양한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시-거시적 통합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별 마을에서의 심층면접에서 채록되는 개별 화자의 구술에서부터 국가통합, 지역협력 및 세계적 이슈와 관련된 거대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담론을 하나의 연구에서 동시에 다룰 수 있다.

5. 참고문헌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이매진.
- 배금찬. 2003. "ASEAN+3 협력과 동아시아 정체성." 『동남아시아연구』, 13(1).
- 오스본, 밀턴. 조흥국 외 역. 2000.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오름.
-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 - 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Acharya, Amitav. 2000. *The Quest for Identity: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uth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nderson, Benedict R.O'G.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nderson, Benedict R.O'G. 1998. *The Spectre of Comparisons: Nationalism,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London, New York: Verso.
- Beeson, Mark. 2007.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 New York: Palgrave.
- Case, William. 2002. *Politics in Southeast Asia: Democracy or Less*. Richmond: Curzon.

- Chong, Terence. 2007. "Practising Global Ethnography in Southeast Asia: Reconciling Area Studies with Globalisation Theory." *Asian Studies Review*, 31.
- Coedès, George. 1968. *The Indianized States of Southeast Asia*. Trans. Susan Brown Cowing.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 Doner, Richard. 1991. "Approaches to the Politics of Growth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Asian Studies*, 50.
- Eggan, Fred. 1941. "Some Aspects of Culture Change in the Northern Philippines." *American Anthropologist*, 43.
- Eggan, Fred. 1967. "Some Aspects of Bilateral Social Systems in the Northern Philippines" Mario D. Zamora, ed. *Studies in Philippine Anthropology: In Honor of H. Otley Beyer*. Quezon City: Alemar-Phoenix.
- Geertz, Clifford. 1960. *The Religion of Java*.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Geertz, Clifford. 1980.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l, D.G.E. 1981. *A History of South-East Asia*. 4th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 Hickey, Gerald Cannon. 1964. *Village in Vietna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ahn, George McT. 1964. *Government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ahn, Joel S. 1993. *Constituting the Minangkabau. Peasants, Culture and Modernity in Colonial Indonesia*. Providence and Oxford: Berg.
- King, Victor T. 2008. *The Sociology of Southeast Asia: Transformations in a Developing Region*. Copenhagen: NIAS Press.
- Kipp, Rita Smith. 1993. *Dissociated Identities: Ethnicity, Religion, and*

- Class in an Indonesian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ratoska, Paul, Remco Raben and Henk Schulte Nordholt, eds. 2005. *Locating Southeast Asia: Geographies of Knowledge and Politics of Space*.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Laothamatas, Anek, ed. 1997. *Democratization in Southeast Asia and East Asia*. Singapore: ISEAS.
- Leach, E. R. 1970.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London: Athlone Press.
- Lieberman, Victor. 1995. "An Age of Commerce in Southeast Asia? Problems of Regional Coherence." *Journal of Asian Studies*, 54.
- McCargo, Duncan & Robert H. Taylor. 1996. "Politics" Mohammed Halib & Tim Huxley, eds. *An Introduction to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Mills, Lennox Algernon. 1949. *The New World of Southeast As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orley, James W. ed. 1993. *Driven by Growth: Political Change in the Asia-Pacific Region*. New York: East Gate Book.
- Neher, Clark D. 1991. *Southeast Asia in the New International Era*. Boulder: Westview Press.
- O'Connor, Richard A. 1983. *A Theory of Indigenous Southeast Asian Urbanis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Pemberton, John. 1994. *On the Subject of "Jav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empel, T. J., ed. 2005. *Remapping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opkin, Samuel L. 1979. *The Rational Peasant: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Society in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Press.
- Reid, Anthony.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One: The Lands Below the Win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odan, Garry, Kevin Hewison and Richard Robison, eds. 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An Introduction*.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 Rodan, Garry, ed. 1997. *Political Opposition in Industrialising Asia*. London: Routledge.
- Scott, James C. 1976.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ott, James C.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eedly, Mary Margaret. 1993. *Hanging without a Rope: Narrative Experience in Colonial and Postcolonial Karola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rling, Nicholas, ed. 1992.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mbiah, S. J. 1977. *World Conqueror and World Renouncer: A Study of Buddhism and Polity in Thailand against a Historical Backgr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Keith Weller. 1983.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aylor, R. H., ed. 1996. *The Politics of Elections in Southeast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ckers, Adrian. 1986. "History and Social Structure in Ancient Java: A Review Article." *Review of Indonesian and Malayan Affairs*, 20.
- Wertheim, W. F. 1993. *Comparative Essays on Asia and the West*. Amsterdam: VU University Press.

Wolters, O. W. 1982.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